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0. 14(금)
담당 부서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외교정책팀장 박영철 (02-2100-2109)
		담당자	사무관 황상윤 (02-2100-2132)

한덕수 국무총리,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(10.13(목)-15(토))

- 페르난데스 대통령 면담, 경제인 및 동포 간담회 개최 등 -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10.13(목)-15(토) 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하여 △페르난데스 대통령 면담 및 공식 오찬, △한-아르헨티나 기업인 간담회, △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, △동포 대표 만찬 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다.
- 한 총리는 10.14(금) 알베르토 페르난데스(Alberto Fernández) 대통령을 면담하여 △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, △경제·통상, △수소·재생에너지, △과학기술 부문 등 협력을 논의했다.
- 특히, 한 총리는 포스코가 올해 리튬 생산공장을 착공하는 등 양국간 핵심광물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, 세계 4위의 리튬 생산국(매장량 세계 3위) 아르헨티나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.
- 아르헨티나 리튬 협력은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의 일부로 리튬 공급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 - * 포스코는 '18년 살타州的 리튬 염호를 인수후 '22.3월 현지 투자(8.3억불)를 통해 상용 플랜트 착공(연산 2.5만톤, 전기차 60만대 생산 가능)하고 향후 추가로 생산규모를 연간 1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

-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,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잠재력이 높다고 하고,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했다.
 - 특히, 수소 활용 분야 기술력 및 수소보급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부존량에 기반하여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간 수소분야 협력 잠재력에 주목했다.
 - * 아르헨티나는 '20년 수소 생산·수송·수출 등을 담당하는 국영회사(YTEC) 설립, '21.9월 '수소 국가전략 2030' 발표 등 그린수소 대량생산 추진 중
 - 향후 양국은 MOU 등 양국간 수소 협력 강화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.

-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속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,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.

-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했고,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우리 정부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.

- 이번 한 총리 방문 계기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한-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의정서*가 서명됐고, 양국 외교연수원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도 체결됐다.
 - * 동 협정('18.11월 체결) 개정을 통해 참가 가능 연령 상한 조정(기존 30 → 개정 34세)

- 한편, 한 총리는 한-아르헨티나 기업인 간담회(10.14, 금)에 참여하여 리튬, 수소에너지, 제약, 식품, 인프라 등 분야의 양국 기업 활동을 청취하고,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.

○ 한 총리는 양국 기업인들이 광물 및 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**경제협력 확대**를 위한 지속적 활동을 당부하고, 정부 차원에서 기업인의 **통상·투자 활동을 지원**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.

* 아르헨티나 카피에로 외교장관은 동 행사 계기 우리 총리의 공식 방문에 맞추어 10.14 오늘자로 발행된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우표를 한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는 증정식을 개최

□ 또한, 한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*(10.13, 목)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금년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**우애가 더욱 깊어지기를** 바란다고 했다.

* 수교 60주년 기념 우리 국악그룹 '타고' 공연, 전통예술(타악 및 무용) 전문 창작공연팀

□ 그리고, 한 총리는 동포 만찬 간담회(10.14, 금)를 개최하여 현지 동포 사회의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고,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**동포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.**

○ 특히,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만 명 규모의 재아르헨티나 동포사회가 현지 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.

□ 양국 간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진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방문은 18년 만의 정상급 방문으로서 자원·식량 강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안보 실질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됐다.

참고2

아르헨티나 약황

□ 일반사항

- 국명 : 아르헨티나공화국
(República Argentina)
- 수도 : 부에노스 아이레스
(Buenos Aires, 307만명)
- 인구 : 4,732만명
- 면적 : 279만km²(한반도의 12.5배)
- 종교 : 가톨릭(63%), 개신교(15%) 무교(19%)
- 공용어 : 스페인어

□ 정치현황

- 정부형태 : 대통령 중심제(임기 4년, 연임가능)
- 의회구성 : 양원제
 - 상원 : 72석(임기 6년)
 - 하원 : 257석(임기 4년)
- 주요 지도자
 - 대통령 : Alberto **Fernández**
(알베르토 페르난데스 / 19.12.10 취임)
 - 부통령 : Cristina **Fernández**
(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/ 19.12.10 취임)
 - 외교장관 : Santiago **Cafiero**
(산티아고 카피에로 / 21.9.20 취임)

□ 경제현황 (2021)

- 국내총생산(GDP) : 4,355억불 (IMF)
- 1인당 GDP : 9,923불 (IMF)
- 경제성장률 : 10.3%
- 물가상승률 : 50.9% (INDEC)
- 교역현황 : 1,411억불 (INDEC)
 - 수출 779억불
 - 수입 632억불
- 외환보유고 410억불 (22.6월, BCRA)

□ 한국과의 관계

- 수교 일자 : 1962.2.15
- 공관 창설 : 1963.12.15
 - 주아르헨티나대사 : 장명수 대사(19.10월 부임)
 - 주한대사 : 알프레도 바스쿠 (Alfredo Bascou)
(19.4월 부임)
- 교역현황(2021)
 - 수출 : 3.9억불(자동차부품, 합성수지, 평판 디스플레이, 자동차)
 - 수입 : 18.2억불(사료, 은, 화학원료, 어류)
- 투자 및 진출기업 현황(2021)
 - 총투자 누계 : 8.59억불
 - 진출기업 : 삼성전자, LG전자, 제일기획, 포스코, 포스코 인터내셔널, 한성수산, 한국선급, LX판토스
- 교민 현황 : 약 22,000명 (2021)

□ 주요인사 교류현황

- 방문
 - 96.09 김영삼 대통령
 - 99.12 김종필 국무총리

- 04.11 노무현 대통령
- 06.03 반기문 외교부장관
- 06.08 반기문 외교부장관
- 07.05 김성호 법무부장관
- 07.12 전윤철 감사원장
- 09.03 남경필 한-아 의원친선협회장
- 10.03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
- 11.03 홍재형 국회 부의장
- 13.05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
- 13.08 김재경 의원친선협회장
- 13.10 안홍준 외통위원장, 박병석 부의장
- 14.08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
- 15.08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
- 15.09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
- 15.12 김재경 특사
- 16.08 유재중 국회 행안위원장
- 17.03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
- 17.04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
- 18.03 김동연 부총리
- 18.05 김명수 대법원장
- 18.08 김재경 한-아 의원친선협회장
- 18.11 문재인 대통령(G20 계기)
- 22.04 김상희 국회부의장

○ 방한

- 91.12 Di Tella 외교장관
- 95.09 Menem 대통령
- 09.08 Taiana 외교장관
- 09.10 Baraño 과기부장관
- 10.09 De Vido 기획부장관
- 10.11 Fernández de Kirchner 대통령
- 11.05 Cobos 부통령 겸 상원의장
- 12.03 Timerman 외교장관
- 16.05 Michetti 부통령 겸 상원의장
- 16.06 Ibarra 현대화장관
- 17.06 Pardo특허청장
- 17.08 Faurie 외교부장관(FEALAC)
- 19.10 Baraño 과학기술부장관

□ 북한과의 관계

- 73.06 외교관계 수립
- 73.08 북한 상주공관 개설
- 77.06 단교(북한 공관원 무단 철수)

□ 주요 정세

- 20.5월, 5.03억불 상당 채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, 역대 9번째 디폴트 발생
- 22.3월 IMF와 440억불 규모 채무조정 협상 타결